

##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칠월 사역 소식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도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가 추세로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 키르기즈는 지난 봄부터 확진자들이 급증하여 이제 하루 확진자가 1천5백명에서 2천명 사이에 이를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도 선제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수치가 아니라, 이미 감염되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상당히 많은 한국인 사역자들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거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러시아 스푸트닉과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점차 수요를 늘리며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꺼려하여 접종 비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는 독감과 같이 코로나19는 매년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며, 국가별로 적절한 거리두기와 방역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온라인 미팅과 교육, 세미나들이 앞으로의 많은 교육, 사업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구조와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신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세상을 향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 1. 드림아카데미(한국어 문화 사역)

지난 1년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계에 불었던 변화의 바람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확실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교육 수준의 회복과 유지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한국 사역자들과 현지 선생님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의 언어수업과 비정기적인 대면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시도한 선생님들의 수고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드림아카데미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언제 대면 수업이 가능한지 늘 문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국에 있는 봉사팀을 연결하여 고급반 10여명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한국어 캠프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이곳을 다녀가는 학생, 봉사팀들이 있어서 매년 대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 방문은 안되지만 온라인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면 행사라면 초급반 학생들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이라서 고급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년 대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 방문은 안되지만 온라인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면 행사라면 초급반 학생들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이라서 고급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드림아카데미 학생들 가운데 한국으로 유학 연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 3

월에 이미 1명이 공주대에 합격이 되어 떠났고, 9월 학기에 떠나게 될 학생들이 2~3명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교육원을 통해 한국에 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3년을 마치고 올해 대학에 들어간 4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수고하던 마들렌 선생이 경희대 대학원에 합격이 되어 여름에 떠나게 됩니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국가 장학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주 신실한 현지인 교사가 한명 줄어서 아쉽지만, 선생님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여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같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계획중인 학생들의 학업과 삶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키르기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2. 소망의 집(노숙인 센터)

소망의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이라 올해도 지내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집 가족분들은 추운 겨울보다 차라리 더운 여름이 낫다고 합니다. 창고 시설 앞에는 키르기스 전기회사의 시설이 있어서 그늘이 없는 데, 올해는 나무를 좀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앞쪽의 공터 공간에 임대를 주려고 담장을 쌓아 이곳 시설 사용자들의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로에 면한 담장을 치워 임대할 땅의 담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열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담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서 지금은 약 3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10여명 정도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다행히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없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숙식은 해결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 병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방문 치료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가끔 방문 의사들의 자원봉사를 받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와 두통약 등 필수적인 상비약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문 진료 상황을 만들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번역 및 현지 사역

번역 사역 팀들은 모두 호주, 미국, 키르기즈에 흩어져 있지만 팀웍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의 신학 감수 작업이 마쳐졌고, 히브리서의 감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인쇄에 들어가면 13권 시리즈 가운데 2권만 남게 됩니다. 아마도 내년 말이면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어로 된 최초의 시리즈 주석의 출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감수 작업을 하고 있는 로빈 교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곳 키르기즈에 있는 현지 사역자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수고와 협력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들 모두 지치지 않고 11년을 함께 달려온 모든 번역팀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이 일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교회의 벡투르 목사 사모인 디아나는 연합신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가르치다가, 올 1월부터 전임 강사로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를 통해 일정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구약 분야의 유능한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연합신학교에서 교무주임으로 일을 하던 타마라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카작에 살고 있는 딸의 오랜 부탁으로 카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합신학교의 모든 역사와 내외국인 교수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방마님처럼 신실하게 사역하였는데 모두가 아쉽고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아나 선생님이 전임으로 들어오게 되어 어

느정도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진 역할들이 점차 안정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그 외의 사역들

영어교사 아이누라는 시골 지역이라 가능했던 대면수업을 학기말까지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라는 말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에 믿음의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이누라에게 외롭지 않고 힘이 되도록 이런 저런 모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이누라가 방학동안 잘 쉬고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한 가정은 특별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 번 소식에 본인도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술을 마시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 아이 둘이 비취책에 와서 저희 새언약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상처 많은 35세 엄마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위해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 가족들 스캐치

지은이는 마지막 학기를 학업과 국가근로를 병행하며 잘 마쳤습니다. 4-5일의 근로 업무 외에도 IVF 모임과 후배 학생을 돕는일, 해외 사역자 자녀들을 상담 사역으로 도우면서 packed 일정을 보내다가 얼마 전에 모든 시험과 과제를 마치고 대학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입학식에 함께 참석한 이후의 4년 학업 기간 내내 기숙사, 자취 생활과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모든 일들을 혼자 결정하며 잘 마무리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취업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해외 사역자 관련 단체인 '콤케드'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서 스텝으로 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콤케드는 주로 해외 사역자 자녀들을 위한 캠프와 돌봄 등의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은이와 지아 모두 고교시절에는 캠프에 참석했었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곳 책임자분과 스텝들이 지은이에게 스텝으로 초청을 하였고, 지은이도 기꺼이 그곳에서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지은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해외사역자들을 위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서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쉽지 않은 주택문제도 이렇게 예비해주셔서 아무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콤케드로 첫 출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콤케드에서의 지은이의 섬김과 그곳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는 이곳 키르기즈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저희의 사역에 동역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드림아카데미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의 교과과정을 만들고, 교재를 선정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 잠시 나가서 그동안 지내던 물건들도 정리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3개월 예정으로 한국에 나가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안면 마비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약 9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작스런 근육경련이 와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움직임이 가벼워지면서 호전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입꼬리 주변과 눈 주위의 신경들이 미세하게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